

# 제7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

정보통신사업, 기기, 멀티미디어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정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지난달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제7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내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 산업의 진운을 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비롯



하여 정보통신기기 시장, 멀티미디어 시장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2000년도 시장전망을, 제2부에서는 인터넷과 통신산업을 연계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전망을 하였고, 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발전방향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정보통신부 공종렬 정보통신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실업문제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첫째, 고도화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통신망의 디지털화를 완성하고 ▲둘째,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맞추어 전자자금이체법, 국내프로그램보호법, S/W개발 촉진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셋째, 모든 국민들이 1인 1PC환경을 구축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정보기기와 활용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창출과 신고용모델의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정보제공업과 정보유통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상거래양식으로 급속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고, 서울을 S/W산업 육성을 위한 세계적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핵심부품 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2004년까지 정보통신기기 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높일 계획이다.

### 국내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전망(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최영신 박사)

국내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의 '99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5.2% 증가한 102조5764억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2000년에는 114조7809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02년에는 연평균 11.65% 증가한 142조6058억원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99년 21조4000억원에서 2002년에는 28조1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의 활성화와 망의 고도화로 인하여 음성과 데이터시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99년에는 16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7.4%의 성장률로 2002년에는 시장규모가 21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리고 부가통신서비스시장은 99년 1조3000억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SO의 등장, IP산업의 대중화와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의 증가로 연평균 25.8%의 고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에는 약 2조7000억원의 시장형성이 전망된다.

정보통신기기 시장은 99년 76조1000억원에서 2000년에는 DRAM, LCD, 이동전화단말기, 저가PC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약 85조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2002년에는 연평균 8.4% 증가하여 496억달러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98년까지 연평균 37.3%의 성장을 거듭, 99년에는 4조9000억원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 통신, 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CTI 및 ERP, EDMS, 전자상거래 도입의 확대에 따라 2002년에는 7조8000억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전망이다.

###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구조 변화와 시장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신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망의 디지털화, 광대역화, 초고속화와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간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방송·정보산업이라는 전통적 영역 구분에서 통신/방송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데이터통신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의한 수요패턴의 변화로 유선 및 무선, CATV를 활용한 데이터통신서비스 확대 등 시장구조가 다양해지고 국내외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구조를 전망하여 보면 유선·무선통신서비스와 망사업자 중심의 통신망제공사업자와 인터넷·PC통신사업자, 별전통신사업자 위주의 다양한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별 시장구조와 규모를 전망하여 보면, 유선통신서비스와 2004년까지 연평균 2.6%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지역적 유선·무선 대체로 시내전화 시장이 축소가 예상된다. ADSL/ISDN/Cable Modem을 중심으로 한 고속접속서비스는 2000~2004년 사이에 매년 63% 이상 가입자가 증가하여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증가세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000~2004년 가입자 증가율 5.8%, 매출액 증가율 11.9%가 전망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고속데이터 시장 확대로 연평균 28%씩 성장하고, 온라인 정보제공은 PC통신/인

터넷 접속서비스는 매년 12.5%씩 성장하여 2004년에는 139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서비스이 경우 경제위기 이후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매출액이 현저하게 줄었으나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2000년~2004년에는 연평균 14.4%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종합/중계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 관련 규제 완화와 적극적 판촉활동으로 가입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 VoIP 시장 전망(한솔텔레콤 김승후 상무)

VoIP는 기존의 Voice Traffic을 사설 또는 공용의 Data Network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통신수단이다. VoIP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통신비용의 절감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데이터회선과 전용 전화망의 통합관리 제공, ARS 등의 안내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등이 기대되며, 국내사업자는 기존 유무선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등이 인터넷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VoIP시장은 인터넷 전화를 중심으로 국내기업 및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음성 Traffic 비중 50%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2000년 국제 전화시장의 약 20% 잠식이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국내의 VoIP시장을 전망하여 보면 인터넷 폰 게이트웨이가 99년 19억에서 2003년에는 104억으로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CTI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여 99년에는 248억에서 2003년에는 862억원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안내

### 조사통계자료집 발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발전과 정보통신산업 정책 및 정보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정보통신산업 관련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흐름을 정확한 통계수치로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자료집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규모별 정보통신산업 현황분석
- 99 정보통신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99 2/4분기 정보통신부문고용동향

※문의:조사통계실(02 580-0612)